

News

예술, 발명, 정보통신...

분야별 영재학교 만든다

내년에 출범하는 과학영재학교 외에 예술, 발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 운영되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인적자원정책개발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과학영재학교 같은 고교 수준의 예술영재학교를, 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연계해 IT 영재를 발굴·교육하는 정보통신영재학교를 구상 중이며, 특허청은 현재 발명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11곳의 공작교실을 개편해 발명영재학급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국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7곳, 고교 7곳의 영재학급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34곳 등 158개로 늘릴 예정이다. 대학이나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도 67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교의 0.1%에도 못 미치는 영재교육의 내실 및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영재를 발굴, 집중 육성하는 책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은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브랜드 로열티 '수입 짹짹'

삼성그룹이 '삼성' 브랜드를 빌려주고 받는 로열티 수입이 짹짹하다. 외환위기 당시 삼성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을 인수한 외국기업들이 한국 영업에 정착하는 방편으로 삼성 브랜드를 쓰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삼성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

지난달 19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2000년 삼성자동차 인수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측에 100억원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 브랜드를 쓰는 대신 영업이익을 내는 시점부터 그 해 매출액의 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삼성 구조조정본부(구조본)와 계약을 한 것. 르노삼성측은 당초 2004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계획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서 흑자 달성이 앞당겨진 것이다.

올해 예상 매출을 1조 5,000억에서 1조 6,000억 수준으로 잡을 때 르노삼성측이 삼성에 지불해야 할 브랜드 사용료는 120억에서 128억원에 이른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측은 "구조본은 계약당사자일뿐만 아니라 브랜드 사용료는 상표권 소유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수입으로 잡힌다"며 "하지만 브랜드 수입 중 일부는 그룹 브랜드 관리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문

쉽게 알아보는 국제출원요령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국내에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이를 외국에 출원하고 싶은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PCT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다.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국가별로 출원하면 된다. 그러면 외국에 실질 출원한 날로 그 외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 소급되어 그 외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데 이를 우선권주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선권주장이란 국내 출원일과 외국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그 외국에 출원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함이다.

그런데, 국제출원은 비용이 문제가 된다. 각국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각국마다 변리사 요금 체계 및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출원시 각 나라의 변리사는 시간당 수당으로 청구된다.

예를 들어 거절이유가 한 번 나오면 의견서 제출비용으로서 외국대리인이 청구해오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청구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출원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힘들다.

대략 한 국가 당 출원시 비용이 국내대리인과 외국대리인 비용을 합쳐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유럽은 유럽특허청에 한 국가로서 출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심사에 합격하여 등록시에는 각 국가별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제도인데, 파리조약보다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기간이 길게 된다.

또한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조사를 해주어, 특허 심사 합격여부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PCT 국제출원은 결국 파리조약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 출원하려는 국가 수가 적을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PCT 국제출원하는 비용도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올해 말이면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조약에 서명하여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되는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면 위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에 비하여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은 WIPO의 국제사무국에서 관장하게 되고, 이 국제사무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각 나라별로 상표출원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각 나라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에 합격되면 등록료 납부 절차도 없이 등록시켜 준다. 그러므로 국제상표출원인은 최초 출원료만 납부하게 되면 의정서 가입국에서 자신의 상표가 보호되므로 획기적인 제도가 된다.

의장은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만 인정되고,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나라별로 출원하여야 한다.

끝으로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비용 문제이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내변리사를 잘 선임하여 외국어로 된 명세서 작성부터 하자가 없도록 하여 필요없는 거절이유를 받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 합격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특허를 잘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이도 국내 변리사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발명안특허상식

'크게 하기' 방법에 의한 발명활동

이미 있었던 것을 보다 크게 만들어 큰 힘을 내거나 효과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크기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크게 만들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크게 하기' 발명의 보기

- 대형 냉장고
음식점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작은 것보다 큰 냉장고를 선호하고 있다.
- 대형 세탁기
세탁소나 많은 세탁물을 빨아야 하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초대형 TV
주택의 큰 거실이나 호텔 등에서 많은 사람이 영화를 감상하듯이 시청한다.
- 풍차
종이를 오려서 만든 비둘기비가 바람을 맞으면 잘 도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 물레방아와 같이 왕이를 찢기도 하고, 많은 물을 쉽게 퍼내기도 하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공고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록업무 등의 서울사무소 취급 안내

특허청 본청(대전)에서만 가능하던 반도체 배치 설계권에 관한 설정등록 신청,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서류 접수업무가 2002년 11월 1일부터 서울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